

이 옥 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레스트의 도덕적 네 구성요소와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김 세 정

레스트의 도덕적 네 구성요소와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 연구

이 옥 형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김 세 정

# 인 준 서

김세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레스트(Rest)의 네 구성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 청소년의 도덕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도덕적 행동은 청소년의 연령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은 중학교 1학년 남녀학생 213명과 고등학교 1학년 남녀학생 193명으로 총 406명이었다. 연구 도구는 도덕적 네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검사, 도덕판단력(DIT) 검사,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검사, 자아강도 검사를 사용하였고, 도덕적 행동 측정을 위해 도덕적 행동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검사 실시 기간은 2005년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연구 결과는 SAS 9.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및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령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차이 분석 결과, 사회적 상황해석능력과 도덕판단력(P점수), 자아강도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2. 성별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상황해석능력과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도덕판단력(P점수)과 자아강도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3. 도덕적 행동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4.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사회적 상황해석능력과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은 도덕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도덕판단력(P점수)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자아강도는 도덕적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지금까지 도덕성 연구는 주로 도덕판단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본 연구 결과 도덕적 행동 표출 과정에서 도덕판단력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변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도덕판단력보다 사회적 상황해석능력과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의 도덕교육은 인지 중심의 도덕판단력 향상을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도덕 사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석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의 향상을 위한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 교육, 체험 중심의 도덕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따른 도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문제 .....	3
<b>II. 이론적 배경</b> .....	4
1. 도덕성의 개념 .....	4
2. 인지발달론에서 본 도덕성발달 .....	8
3. 도덕적 행동에 관한 세 가지 접근 모형 .....	17
<b>III. 연구 가설</b> .....	25
<b>IV. 연구방법</b> .....	26
1. 연구 대상 및 절차 .....	26
2. 측정 도구 .....	27
1)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검사 .....	27
2) 도덕판단력 검사 .....	27
3)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검사 .....	29
4) 자아강도 검사 .....	29
5) 도덕적 행동 측정 설문지 .....	30
3. 자료 처리 및 분석 .....	30
4. 연구의 제한점 .....	31

<b>V. 연구 결과</b> .....	32
1. 연령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차이 .....	32
2. 성별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차이 .....	35
3. 연령별, 성별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 .....	39
4.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40
<b>VI. 논의 및 제언</b> .....	43
1. 논의 .....	43
1) 연령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차이 .....	43
2) 성별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차이 .....	45
3) 연령별, 성별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 .....	46
4)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46
2. 제언 .....	48
참고문헌 .....	50
ABSTRACT .....	53
부 록 .....	55

## 표 목 차

<표 1>	도덕-단계 발달에 대한 레스트의 개념화 .....	14
<표 2>	연구 대상 .....	26
<표 3>	연령에 따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 t-검증 .....	33
<표 4>	연령에 따른 도덕판단력(P점수) : t-검증 .....	33
<표 5>	연령에 따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 t-검증 .....	34
<표 6>	연령에 따른 자아강도 : t-검증 .....	35
<표 7>	성별에 따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 t-검증 .....	36
<표 8>	성별에 따른 도덕판단력(P점수) : t-검증 .....	37
<표 9>	성별에 따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 t-검증 .....	38
<표 10>	성별에 따른 자아강도 : t-검증 .....	38
<표 11>	연령에 따른 도덕적 행동 : t-검증 .....	39
<표 12>	성별에 따른 도덕적 행동 : t-검증 .....	40
<표 13>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4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 사태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상황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문제는 사유(思惟)의 존재인 인간이 보다 바람직한 개인의 삶과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제기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고 가치 있고 바람직한 행동인가, 즉 도덕성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탐구와 연구는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도덕성 탐구의 대표적 두 영역으로는 철학적 탐구와 경험과학적 탐구를 들 수 있는데, 그동안 이 두 영역에서의 탐구는 도덕교육이 추구해야 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특히 경험과학적 탐구의 한 영역인 인지발달이론은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일련의 조직화된 사고 및 행동구조의 양상으로 봄으로써 종전의 덕목 중심의 교화적 도덕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덕적 사고력 향상을 통한 도덕성 함양이라는 도덕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이와 같이 도덕성을 인지구조의 한 양상으로 보는 구조이론은 피아제(Piaget, 1932)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고, 그의 이론은 그 후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으로 발전하여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콜버그의 연구 결과와 콜버그의 주관형 면담법인 측정도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레스트(Rest, 1974)에 의해 객관형 검사인 DIT(Defining Issues Test)가 개발되었고, 이 DIT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콜버그의 이론은 수정 보완되었다.

피아제의 이론을 정교화 시킨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여러 나라의 도덕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도덕적 사고 발달단계를 촉진시키는 방안인 소그룹 토론법은 도덕교육 방법의 혁신적인 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도덕교육에 미친 그의 혁신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해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그중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 간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콜버그(1987)는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의 관련성을 도덕적 사고가 성숙함에 따라 행동이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도덕적 사고와 행동 간의 불일치는 낮은 단계의 도덕적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콜버그(1984)는 도덕적 판단이 행동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은 도덕적 사고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일차적인 의무판단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의무판단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책임판단수준으로 심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도덕성 연구의 궁극 목적이 도덕적 행동의 설명으로 귀착된다고 볼 때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 간의 불일치라는 문제는 여전히 콜버그 이론에서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송명자, 1997).

반면 레스트는 콜버그의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 간의 불일치의 문제는 콜버그가 그의 이론적 틀 속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네 구성요소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레스트는 제1 구성요소인 도덕 사태의 인지와 해석, 제2 구성요소인 이상적 도덕 행동 추리, 제3 구성요소인 행동에 옮길 방안 결정, 제4 구성요소인 결정된 행동 방안의 실행이라는 네 구성요소 모형인 복합발달 모형(complex developmental model)을 통해 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보다 근원적으로 조명하였다(문용린, 1986a).

도덕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가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행동에 있음을 상기할 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근

거한 도덕교육만으로는 도덕교육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도덕교육의 최종 목표가 도덕적 행동향상에 있음을 지각할 때,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레스트의 네 구성요소 모형에 대한 분석과 레스트의 네 구성요소 모형에 의한 도덕적 행동에 대한 해석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콜버그 이론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레스트의 네 구성요소 모형에 의한 도덕적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외국에서는 활발한 편이나, 국내의 선행 연구로 박찬주(1989)의 한국인의 도덕판단과 행동선택에 관한 DIT적용 연구, 김명원(1993)의 도덕성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레스트의 네 가지 구성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홍성훈(2000)의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과대학생들의 도덕 판단력·민감성·행동선택을 중심으로) 등이 있으나 아직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행동 변인으로 레스트의 네 구성요소와 도덕적 행동 간의 관계를 밝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도덕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분석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도덕적 행동은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4.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도덕성의 개념

도덕성의 개념을 심리학자들 간에도 그들의 이론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덕성에 대한 개념 규정은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행동주의), 인지발달이론의 세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도덕성을 아주 어릴 때 경험에 의해 무의적으로 형성된 양심을 도덕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덕적 덕목들이 내면화되어 성격의 일부로 배어든 상태를 도덕성이라고 본다(정종진, 1990).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Freud)는 초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의 유아들은 이드(원초아)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이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초자아는 남근기(3-6세)에 발달하고, 이 시기에 남아는 외이디프스 콤플렉스를,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하며 동성인 부모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 한쪽 부모의 도덕성을 내면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부모의 도덕성을 성공적으로 내면화한 아동은 초자아가 발달되어 도덕적 위반 행위를 할 때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봄으로써 자부심,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정서들이 도덕적 행위에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되며, 도덕적 원리의 내면화가 도덕적 성숙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 볼 때 유아기에 부모의 성향과 역할이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자녀의 관계는 도덕성 형성의 기본 기제로서 부모-자녀의 관계가 친밀하고 온정적이어야 부모에 대한 보다 강한 동일시가 형성될 수 있으며, 애정이 없는 부모의 태도나 훈육은 아동에게 적대감과 반발을 유발시켜 도덕성 발달에 역기

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신분석이론은 초자아나 죄책감과 같은 성격발달의 심리역동적 개념에서 도덕성을 밝힘으로써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초기 경험이 도덕성 발달을 좌우한다고 봄으로써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밝혀냈지만, 인간행동의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측정을 제공하거나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과 도덕성 발달에 대한 다양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모방과 관찰이라는 두 변인을 도덕성 발달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덕적 행동은 모방과 관찰에 의해 학습된 것으로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기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 이론에서 도덕성이란 관찰 가능한 도덕 행위의 총체로 본다(이옥형, 1999).

아론프리(Aronfreed), 반듀라(Bandura) 등의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기 강화이거나, 죄책감, 불안감, 벌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보았고, 도덕성도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이므로 강화와 모방에 의해 습득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가 호프만(Hoffman, 1970)은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은 들키거나 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도덕규범을 어기고자 하는 욕구를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가 하는 '유혹에 대한 저항' 능력이라고 보았다. 호프만(Hoffman, 1970)은 외적 감시자가 없는 상황에서 유혹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은 도덕규범을 학습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학습기제로 보상과 처벌, 모방, 훈육 등을 지적하였다.

사회학습 이론가들의 주장과 견해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도덕성 발달은 구체적이며 개별적 상황에서 하나하나 도덕적 습관을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는 계속적이며 개별적인 강화의 필요성과 부모의 도덕적 모범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이옥형, 2002).

그러나 사회학습 이론가들처럼 외형적으로 나타난 도덕 행위를 도덕성으로 볼 때, 하나의 덕행 또는 덕목만으로 도덕성에 대한 보편적 특징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호프만(Hoffman, 1977)도 지적했듯이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나 처벌이 단기간의 순종을 유발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장기적으로 일반화된 도덕적 습관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 이론의 한계가 있다. 또한 통제에 의한 학습을 주장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인간 고유의 주관적이며 내재적인 성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주로 도덕적 문제 사태에서 도덕적 원리에 맞게 판단하는 능력을 도덕성으로 본다.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도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도덕성의 발달은 일련의 조직화된 사고 및 행동 구조의 한 양상의 특징을 가지며, 둘째, 도덕성은 일정한 발생적 단계를 거쳐 변화해 가며, 셋째, 도덕성 발달은 개체와 사회 및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고, 넷째, 도덕성 발달과정은 개인 스스로에 의해 구조화되고 통제된다는 것이다(Turiel, 1973; 송명자, 1997).

그러므로 인지발달이론에 입각해서 도덕성을 볼 때 도덕성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외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을 체계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부터 생성되는 가치개념 또는 가치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덕성 발달이 인지발달의 한 양상이므로 아동이 자라면서 인지적 능력이 질적으로 변함에 따라 도덕성 또한 질적인 단계를 통해 발달된다고 보고 있다.

도덕성의 인지발달론적 접근은 피아제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켜 도덕성의 인지발달이론을 확립시켰다.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레스트는 콜버그의 이론을 일부 수용하지만, 그가 개발한 도덕 판단력 측정도구인 DIT를

이용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도덕성 발달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들 세 학자들이 규정하는 도덕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용린, 1986; 정종진, 1990).

피아제(1965)는 “일체의 도덕성은 규칙의 체계로 되어 있으며, 모든 도덕성의 본질은 개인이 그러한 규칙을 어떻게 학습하느냐하는 과정에서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규칙을 내면화하여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능력, 즉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도덕성의 본질임을 밝혔다.

한편 피아제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콜버그(1958)는 도덕성을 도덕적 갈등 사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판단의 근거나 이유의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콜버그는 아동의 도덕적 기준은 부모나 동료집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도덕성의 원리가 타인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어떤 문제 사태를 직면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인지적 갈등 사태나 불평형의 상태에서 평형의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조절과 동화의 논리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획득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지발달이론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 활동에 기여한 레스트(1983)는 도덕성을 사람들이 서로의 복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원리이며 안내로 보았다. 즉, 레스트가 정의하는 도덕성은 사람들이 장래의 인류복지를 위해 어떻게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와 관련한 특정한 사회적 가치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2. 인지발달이론에서 본 도덕성발달

도덕성에 관한 인지발달이론적 연구의 효시인 피아제는 「아동의 도덕 판단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1932)의 저서에서 실증적 연구를 기초로 아동의 도덕성 발달은 초기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타율적 도덕성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포함하는 보다 넓게 균형화된 자율적 도덕성으로의 2단계 변화를 거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아제는 아동의 보다 적절하고 ‘평형화’된 도덕 지향이 가족이 아닌 또래집단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래 간의 협상과정과 협동하는 방법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논쟁을 해결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아동의 도덕성이 발달됨을 강조하여 종전의 전통적인 도덕교육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피아제의 도덕성발달이론은 도덕성발달을 인지발달의 한 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동의 도덕성발달은 인지발달과 더불어 발달되며,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개념화를 하느냐에 의해 발달된다는 주장이다.

도덕성발달에 관한 피아제의 입장에서는 도덕성발달을 도덕판단력의 발달로 간주하고 있으며, 내면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과 원리는 아동이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인지구조의 표현으로 보았다. 피아제(1960)는 이러한 인지구조의 단계에 대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단계들은 아동의 추리 방식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며, 둘째, 질적으로 다른 추론 방식은 불변적 순서를 형성하거나, 문화적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없는 일정한 연속적인 순서를 형성하며, 셋째, 각 추론 형태의 양식은 하나의 구조적 전체를 형성하는데, 이 구조적 전체는 사고 조직이나 추론 양식, 또는 피상적으로 보기에 서로 다른 “표면적” 반응을 결합하는

심층적인 구조이고, 넷째, 단계들은 위계적 통합체로서 뒤에 오는 단계가 단순히 전 단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순서의 구조는 재조직화되고 재통합되어 더 높은 단계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문용린역, Lapsley, 2000).

콜버그는 이러한 피아제의 견해를 바탕으로 피아제의 도덕성발달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피아제와 마찬가지로 도덕성 발달 양상을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에 따라 도덕성발달 수준도 단계적 계열을 따라 순서대로 발달해간다고 믿었다. 콜버그는 도덕판단의 각 새로운 단계를 이전 단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조작의 획득으로 간주하였고, 이런 이론적 조작은 비개인성, 이상성 및 보편성을 포함하는 형식적 사유(思惟)의 특성을 점차 반영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콜버그에 있어서 도덕성발달은 개인적 가치의 내용상의 변화가 아니라 분화와 평형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의 사고구조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아제와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송명자, 1997).

콜버그는 피아제의 관점과 같이 인지구조를 사고의 원천으로 보아 심층구조로서 인지구조는 피험자들의 언동을 통해 추리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으나 피아제의 견해와는 차이점이 있었다. 즉, 피아제가 하나의 도덕발달 징표가 곧바로 이에 대응하는 인지구조의 특징으로 본 것과는 달리, 콜버그는 여러 도덕발달 징표가 특정 도덕발달 단계 또는 수준으로 묶여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그의 개인면접방식을 사용하여 도덕발달 징표에 따라 3수준 6단계로 사람들의 도덕성을 변별하였다. 각 단계는 선택에 대한 이유와 정당화 방식에 따라 전인습적 수준(preconventional level : 1, 2단계), 인습적 수준(conventional level : 3, 4단계), 후인습적 수준(post-conventional level : 5, 6단계)으로 구분하였다.

콜버그가 제시한 3수준 6단계의 도덕성발달 단계는 낮은 단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위계적으로 계속 통합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보다

높은 단계의 조직 형식(form)은 낮은 단계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한 각 단계는 그 단계 내에서 구조화된 전체(structured d'ensemble)를 보여주는 것이며, 불변적 계열성과 위계적 통합성 등의 일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논리적 인지구조는 궁극적으로 정의의 개념으로 나타나며, 이 정의의 구조는 이전 단계의 구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며 분화된 것이고 더욱 평형화된 것을 의미한다(박찬주, 1990; 문용린 역, Lapsley, 2000).

콜버그는 도덕발달의 최종 단계(6단계)를 도덕 이상(moral ideal)으로 개념화 하였는데, 그가 말한 도덕 이상이란 도덕판단 원칙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며, 도덕적 갈등과 불일치 상태에 있을 때 동의와 일치 를 모색하고자 하는 관점이다(문용린 역, Lapsley, 2000).

이상과 같이 콜버그는 도덕성의 중요한 개념으로 덕목이나 가치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정의(justice)에 관한 논의방식으로서의 형식(form)을 의미했으며, 도덕성발달을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지적 평형화 과정의 산물'로 봄으로써 도덕적 갈등상태에서의 불평형화를 조절을 통해 평형화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였다(문용린, 1986a). 따라서 그는 도덕적 갈등상태에서 불평형화를 조절하고 평형화해 나감으로써 도덕판단력이 발달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도덕교육에서 소그룹 토론법을 강조하기도하였다.

도덕성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콜버그는 도덕성발달은 도덕적 원리와 사회가 기대하는 내용을 내면화함으로써 일어나는 인지적 평형화와 타인의 입장을 취해볼 수 있는 역할획득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콜버그는 동료간 역할채택(role-taking) 놀이의 기회가 도덕성발달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 친구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채택(role-taking) 놀이가 이루어짐으로써 도덕성발달이 촉진된다고 강조하였다(문용린, 1986a).

콜버그는 그의 단계설을 입증하기 위해 50명의 소년들을 3-4년 간격으로

20년간 종단적 연구(Colby, Kohlberg, Gibbs & Lieberman, 1983)를 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도덕판단력의 발달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5단계의 도덕성은 연령과 더불어 증가했지만 10%미만이었고, 6단계는 찾아 볼 수 없었다(문용린, 1986a; 이옥형, 2002).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제시한 콜버그의 이론이 도덕교육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지만, 그의 이론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 또한 학자들 사이에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지적하는 콜버그의 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송명자, 1995; 이옥형, 2002).

첫째, 콜버그가 설정한 후인습적 도덕성, 특히 6단계 도덕성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문제이다. 실제 연구된 자료에서 5단계에 도달한 비율은 10% 이내였고, 6단계에 도달한 사람의 비율은 극히 드물었으며, 20년간 종단적 연구에서도 6단계에 도달한 사람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6단계 도덕성은 이상적인 도덕성발달의 방향을 제시한 이론적 개념에 불과하며, 실제 도덕성발달을 진단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둘째, 도덕성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퇴행현상이다. 콜버그의 이론에서 도덕성발달은 인지적 판단능력의 발달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발달된다고 했으나, 일부 연구(Kohlberg & Krammer, 1969; Turiel, 1974)에 의하면 고등학교 시기에서 대학생 시기 사이에 4단계에서 5단계로 진전하는 대신에 2단계의 전인습적 수준으로 퇴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콜버그(Kohlberg, 1984)는 이러한 퇴행이 도덕판단력의 진정한 퇴보가 아니라 일시적인 동요라고 주장했지만, 후인습적 도덕성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도덕판단력과 도덕적 행동 간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인지발달이론에서는 도덕적 행동보다 도덕적 관련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사고능력을 중시하지만 도덕적 행동의 출현 보장이 희박하다면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 콜버그 자신의 연구(1975)에서도 3수준의 도덕성에 있는 학생의 15%,

2수준의 도덕성에 있는 학생의 55%, 1수준의 도덕성에 있는 학생의 70%가 시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콜버그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도덕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이 항상 일관성 있게 일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콜버그의 이론이 주로 미국 중상류 백인들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문화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지적이다. 콜버그의 이론에서 도덕성발달의 최종 목표로 지향하는 후인습적 사고가 개인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서구사회에는 적합하지만 모든 문화권에 통용되는 가치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섯째, 도덕성 본질에 관련된 문제이다. 콜버그의 이론이 추구하는 도덕성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권리와 공정성이라는 도덕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여 타인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다. 길리건(Gilligan, 1982)은 콜버그의 이론을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성차별적 편견을 지닌 이론이라고 지적하면서, 6-18세 사이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길리건은 콜버그가 소년만을 대상으로 도덕성발달 단계를 설정하고, 이에 비추어 도덕성발달 수준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낮다고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여섯째, 콜버그의 연구방법에서 사용했던 질문지에 대한 신뢰성과 용이성의 문제이다. 콜버그의 질문지는 표준화 과정이나 심리적 구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채점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많아 객관성 확보가 어려우며 채점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다.

콜버그의 이론을 보다 다양한 이론적 검증을 통해 발전시킨 레스트는 피아제-콜버그로 이어지는 학문 연구상에 있지만, 피아제와 콜버그와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레스트는 콜버그의 도덕성 측정도구가 갖는 객관성 확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보완을 위해 DIT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는

DIT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과정에서 콜버그의 이론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콜버그의 이론을 수정 보완하였다(문용린, 1986a).

레스트(1986)는 도덕성을 사회적 상황과 인간의 심리적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레스트는 도덕성을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회집단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각 개인이 소외되고 이탈되지 않기 위해 사회에 대해 협동과 조화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도덕성의 기능을 서로 간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해소하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상호 최적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사회조직의 제일 중요한 원리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측면에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레스트는 도덕성발달의 기본은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적 요구에서처럼 각 개인의 심리적 과정, 즉, 친사회적 행동을 위한 감정이입,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발달 등이며, 이것은 또한 사회 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레스트는 협동의 개념을 사회관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협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화된 관점으로 간주하고 도덕적 사고의 단계를 협동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여섯 단계의 도덕 단계는 <표 1>과 같다(문용린 역, Lapsley, 2000).

레스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대한 특징을 콜버그의 이론과 비교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스트(1979)는 도덕성발달 단계설정을 위한 판단 근거가 되는 인지구조의 도덕발달 징표에 대해 콜버그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콜버그는 모든 피험자의 도덕적 반응을 184개의 도덕발달 징표로 분류하여 6단계의 도덕판단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레스트는 콜버그의 도덕발달 징표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1)도덕발달 징

<표 1> 도덕-단계 발달에 대한 레스트의 개념화 (문용린 역, Lapsley, 2000)

단계	공유되는 기대	이익의 조화	중심 개념
1	성인은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한다.	규칙은 성인들이 만드는 것이다. 복종해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아동은 생각한다.	복종: “시키는 대로 해라”
2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상호간에 결정되는 것이다.	교환을 통해 이익이 있어야 상호작용을 한다.	도구적 이기주의: “거래해 보자”
3	개인은 상호호혜적인 역할 채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협동이란 친구 관계를 통해 공고해진다. 서로 타인의 필요와 요구, 감정을 예측하고,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대인 간 조화: “착하고 친절하게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
4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가는 공적인 법률을 통해 알 수 있다.	타인들도 법에 복종하고, 자신의 일과 책임에 맞춰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협동 체제를 위한 기본이다. 우리는 이 체제의 안정을 확신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회질서를 위한 법과 의무: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의무가 지워지고 보호받는다.”
5	법률을 만드는 공식적인 절차는 만들어진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절차를 수용한다고 생각한다.	법제정 절차는 일반의 의지를 반영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이익이 정당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가 기본이다.	사회적 합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은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개인들 사이의 협동은 사회조직을 위해 논리적으로 필요하다.	협동의 개념은 권리와 책임의 임의적인 분배를 막아준다. 사회 체제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	비임의적 협동: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협동을 하느냐가 바로 도덕이다.”

표는 피험자의 발언에 명백히 적용될 수 있게끔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콜버그의 도덕발달 징표는 그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 (2)각 도덕발달 징표는 1단계-6단계의 사고체제 내에서 논리적 위계로 배열되어야 하지만, 콜버그의 도덕발달 징표는 이런 논리적 위계성이 미흡하다. (3)어떤 도덕발달 징표가 왜 다른 도덕발달 징표보다 더 발달된 것인지에 대한 정당화가 있어야 하지만, 콜버그의 정당화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문용린, 1986a).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던 레스트는 콜버그와는 달리 도덕발달 징표를 두 가지의 일반 차원으로 설정하여 도덕성발달 단계를 설명하였다. 즉, 도덕발달 징표의 하나는 공유된 기대에 관한 개념으로 목표와 계획을 조화시키기 위해 규칙은 어떻게 알려져야 하고 공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사회 조직을 이루기 위해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다(문용린 역, Lapsley, 2000).

둘째, 레스트와 콜버그 간에는 도덕판단의 내용으로부터 형식을 추출해 내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 콜버그는 도덕발달 징표들이 주어진 내용(content)으로부터 네 단계(issue → norm → element → stage)의 추상과정을 거쳐 형식(form)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레스트에 있어서 형식은 피험자가 제기하는 도덕판단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추리해낼 수 있고, 콜버그가 제시한 4단계의 추상과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문용린, 1986a).

셋째, 레스트는 콜버그의 단순단계 모형(simple stage model)에 대해 복합발달 모형(complex developmental model)을 제시하였다. 콜버그의 단순단계 모형은 몇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1)특정 발달 단계에 있는 피험자는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수준의 도덕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 (2)도덕발달 6단계는 보편적, 항상적, 불가역적, 한번에 한 단계씩만 상승할 수 있다는 것, (3)각 단계는 구조화된 전체성(structured whole-less)을 갖는다는 것, (4)원칙상 피험자는 하나의 발달단계에 속하며, 둘 이상의 발달단계에 동시에 속해 있을 수 없다는 것, (5)한 단계 위 단계로의 상승은 점

진적이기 보다 급격한 질적 변환이라는 것이다(문용린, 1986a).

그러나 콜버그의 단순단계 모형의 가정에 대한 레스트의 입장은 달랐다. 레스트는 무엇보다도 인지구조의 변환은 급격히 일어나기 보다는 보다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인지구조의 점진적 변환은 피험자의 사고 단계가 다음 단계의 형태로 출현할 빈도수가 증가한다는 뜻으로 상위의 다른 단계로의 변환이 아니라 것이다. 그러므로 콜버그식으로 피험자를 어느 특정한 하나의 단계로 분류하는 것은 도덕성발달이 점진적이고 여러 단계의 중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간과 한 셈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레스트는 피험자들은 동일한 과제나 상황에서조차도 서로 다른 도덕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레스트는 DIT나 콜버그의 검사 모두에서  $r=.70 \sim .80$  재검사 신뢰도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피험자의 도덕판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피험자의 도덕판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어느 한 순간에 피험자가 하나의 발달 단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단계의 사고가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문용린, 1986a).

이 밖에도 레스트는 콜버그가 사용한 검사에서 딜레마를 바꾸어 제시했을 때 피험자의 도덕성발달 단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검사자료의 형태, 지시사항, 채점기준, 검사시행의 엄격성에 따라 피험자의 발달 단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문용린, 1986a).

이상과 같이 콜버그의 이론과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한 레스트(1983)는 도덕성발달은 보다 복합적인 모형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도덕성의 측정은 주어진 과제, 검사자료, 검사조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레스트(1983)는 도덕성 측정의 기본적 질문은 피험자가 몇 단계의 사고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피험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다양한 도덕적 사고를 하는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사고는 낮은 단계의 사고가 줄어들고 높은 단계가 확률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 3. 도덕적 행동에 관한 세 가지 접근 모형

도덕적 지식과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중요한 논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도덕적 지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철학, 윤리학에서 뿐 아니라 교육학, 심리학에서도 오래된 관심 영역이었지만, 이 문제의 부상은 콜버그를 중심으로 한 인지발달이론의 집중된 관심에서 기인된 것이다(문용린, 1988).

콜버그의 이론(1958)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여러 연구에 인용되면서 그의 이론을 둘러싼 찬반론이 제기되었다. 콜버그가 제시한 도덕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이론을 비판한 대표적 예는 엘스톤(Alston, 1971), 미셸과 미셸(Mischel & Mischel, 1976), 피터즈(Peters, 1971), 그리고 레스트(1984) 등을 들 수 있다.

도덕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논쟁이 부상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두 개의 종합 평론인 레스트(1979a)의 연구와 블라지(Blasi, 1980)의 연구가 출간되었다. 블라지는 그의 종합 평론(1980)에서 검토된 75개 연구 중에 57개(76%)의 연구가 도덕적 사고와 행동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레스트(1979)도 DIT를 사용한 그의 종합 평론에서 도덕적 사고와 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문용린, 1986a).

도덕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상관관계 발견에 실패한 연구들도 많지만, 대다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블라지(1980)는 도덕적 사고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도덕적 사고가 도덕 사태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도덕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은 결코 도덕적 가치가

갖는 정서적이거나 태도와 같은 동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문용린, 1988).

그러나 블라지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 볼 때, 그 정도는 공변량으로 보아 5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사고와 행동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모형화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문용린, 1986a).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들은 대표적으로 콜버그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한 콜버그와 캔디의 모형(Kohlberg & Candee, 1981), 블라지(1981)의 자아모형(Self-model), 레스트(1983)의 네 구성요소 모형을 들 수 있다(문용린, 1988).

콜버그와 캔디(1981)모형에서는 도덕적 행동 표출 과정에 의무판단과 책임 판단이라는 새로운 판단 과정을 삽입하였다. 콜버그와 캔디는 도덕적 사고는 구체적 도덕 사태와 관련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판단의 매개 과정을 통해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여기서 의무판단이란 도덕적 사태에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이상적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말하고, 책임판단이란 의무판단에 따라 행동할 책임의 수용 여부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용린 역, Lapsley, 2000).

그들의 모형에 따르면 도덕판단이 행동으로 표출되기까지는 도덕문제를 해석하는 과정, 의무론적 선택과정, 추후 실행에 필요한 책임 또는 의무판단과정, 그리고 비도덕적 기능이 고려되는 과정 등의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았다. 이 모형은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을 개별적 과정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덕적 사고와 행동 간에 단선적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박찬주, 1989).

이 모형에서 콜버그와 캔디는 도덕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사고와 행동 간에 일관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즉, 도덕발달 단계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선택으로써 올바른 도덕적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책임판단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도덕적 사고와 행동

사이에 단선적 관계를 기대하였다.

블라지(1981)가 제안한 자아모형(Self-model)은 콜버그와 캔디의 모형과 유사하지만 책임판단을 보다 자아 개념적 동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가 제시한 모형에서는 도덕적 사태의 해석, 구체적 행동의 선택, 책임판단의 수립 등의 도덕적 사고가 하나의 자아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 행동의 기초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수반하는 책임(responsibility)과 자아와 일치된 행동들과 자아에 진실된 행동들에 기인하는 전체성(wholeness) 및 개인적 완전성(intactness)을 뜻하는 통합(integrity)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도덕성에 관한 이성적 이해가 자신의 인격, 즉, 강한 의지 또는 행위체계로 통합될 때 자신에게 부여하는 도덕적 요구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도덕적 통합은 행동이 도덕적 지식에 의해 동기화되고, 개인이 책임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며, 도덕적 이성의 안내에 따라 형성된 자아체계는 본질적으로 체계 일관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론 방어기제나 자아강도와 같은 요인의 발휘를 고무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자아체계의 일관성으로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실제 도덕 사태에서 도덕적 행동을 표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문용린, 1986; 문용린 역, Lapsley, 2000).

레스트(1983)는 콜버그와 캔디, 그리고 블라지와는 다른 견해를 가졌다. 레스트(1983)는 도덕적 사고란 도덕적 행동을 표출시키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콜버그나 블라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도덕적 행동의 표출 요인들을 생각하여 네 구성요소 모형을 제안하였다.

레스트(1986)는 한 개인이 도덕적 행동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네 가지의 기본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첫째 과정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 가능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상황해석 과정이다.

둘째 과정은 이상적인 도덕적 행동의 방향을 찾는 도덕적 사고의 과정이다.

셋째 과정은 도덕적 행동 수행을 위한 여러 가치들 중에서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가치부여 경향성의 과정이다.

넷째 과정은 자신이 하려고 의도했던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는 결단성의 과정이다. 이러한 레스트의 네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 구성요소 : 도덕 사태의 인지와 해석**

제1 구성요소는 도덕 사태를 도덕적으로 지각하고 처리하는 상황해석 과정으로 인식, 평가, 해석이라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포함한다.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도덕 사태에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 또는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생각하며 특정 상황을 해석하게 된다. 물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도덕 사태에서 사람에 따라 문제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둔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덕 사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도덕적 행동의 표출 양상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도덕적 사태 상황에서 도덕 사태로 지각되거나 규정되지 않을 때 도덕적 행동 표출은 불가능하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슈를 더 잘 찾아내고 표명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고민이나 결단을 해야 할 사태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문용린 역, Lapsley, 2000).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을 레스트(1983)는 특정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 각자의 요구와 욕구를 추론해 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도와주었을 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지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은 어떤 사람이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행동이 가능하지를

추론하며,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 누가 이익을 보는지, 그리고 각각의 행동 방향들이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의 복지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론해 내는 과정을 말한다고 하겠다.

## **제2 구성요소 : 이상적 도덕 행동의 추리**

도덕 사태에 대한 적절한 인지와 해석이 이루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이며, 도덕 법칙이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행동의 방향을 찾는다. 즉,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며, 개인적으로 그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은 도덕적 행동 추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콜버그가 말하는 도덕적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도덕적 행동에 대한 추리 능력인 도덕판단력에 따라 도덕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문용린 역, Lapsley, 2000).

## **제3 구성요소 : 행동에 옮길 방안 결정**

이상적 도덕 행동에 대한 추리 능력인 도덕판단이 도덕적 행동 표출에 영향을 주지만, 이 추론만으로는 도덕적 행동 표출이 어렵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 표출은 다양한 가치 또는 갈등 속에서 이상적인 도덕적 행동 추리를 따르는 가치를 선택할 때, 즉 의사 결정을 할 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도덕적 행동 추리가 바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양한 가치가 있고, 다양한 가치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가치들을 물리치고 이상적인 도덕적 행동 추리에 따르는 가치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도덕적 사고와 행동 선택의 불일치라는 문제도 도덕적 판단에 따른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중히 여기는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문용린 역, Lapsley, 2000).

레스트(1983)도 지적했듯이, 종종 어떤 사람에게서는 다른 가치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이 도덕적 가치를 압도하기 때문에 다른 타협점을 찾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옳고 시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체에 위협을 줄 경우나, 경제적 타격을 줄 경우에는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망설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4 구성요소 : 결정된 행동 방안의 실행**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상황파악을 하고, 그 상황과 관련된 도덕적 요소를 규명하고, 경쟁하는 가치,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동을 결정해서 도덕적 행동을 수행하도록 충분히 동기화 했지만 이것으로 도덕적 행동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도덕적 행동 표출은 도덕적 행동을 실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용기와 결의를 갖고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쳐서 강한 의지로 선택한 가치를 실행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본다(문용린 역, Lapsley, 2000).

레스트(1983)는 제4 구성요소 과정을 행동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고 완수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레스트(1983)는 이 과정이 행동을 실행하는데 예기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루함과 좌절을 극복하며, 혼란이나 다른 유혹에 저항하여 선택한 가치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 자아강도(ego strength)와 자기통제(self regulation), 인성내적 강도와 결단력, 자신의 목표를 지켜내려는 의지 등의 심리적 요인이 개입된다고 하였다(문용린 역, Lapsley, 2000).

이상과 같이 레스트의 네 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 변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며, 그 과정 변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출발하였다. 레스트(1986)는 그의 네 구성요소 모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네 구성요소 모형에서의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은 서로 단선적인 관련

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한 가지 과정이 다른 과정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겠지만 이들 네 가지 심리적 요소는 각각의 별개 과정이다.

둘째, 네 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성의 기본요소를 인지, 정서, 행동과 같이 서로 분리된 관점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도덕적 현상의 장(場)에서는 인지는 항상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정서는 항상 인지와 관련이 있고, 인지와 정서는 모두 도덕적 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함께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네 구성요소 모형에서의 각 구성요소는 서로 다른 인지와 정서의 상호 관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네 구성요소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 과정에 내재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선택 과정이 어떻게 야기되는가를 알아보는 각각의 분석단위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네 구성요소 모형이 도덕적 행동을 표출하는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전체적 조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넷째, 네 구성요소 모형은 직선적 계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각 구성요소들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제2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이 제1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상황해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1 구성요소의 과정 적용 후 제2 구성요소 과정이 적용되고, 제2 구성요소 과정의 적용 후 제3 구성요소 과정이 적용되고, 제3 구성요소 과정의 적용 후 제4 구성요소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네 구성요소는 도덕적 행동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을 기술한 분석적 틀이며, 논리적 계열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테스트의 네 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적 행동 표출 과정에서는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른 과정 또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모두 함께 측정할 때 어느 한 가지 과정이나 요소만을 측정하여 도덕적

행동을 예언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높은 예측성을 지닐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도덕적 행동 실행의 실패는 네 가지 구성요소 중에 어느 한 가지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표출 과정은 어느 한 가지 구성요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모든 구성요소와 관련을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레스트의 네 구성요소 모형에서는 하나의 도덕적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이 작동된다고 보았으며,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레스트의 네 구성요소 모형을 통해 도덕적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 가설

가설 1.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제1 구성요소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제2 구성요소인 도덕판단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제3 구성요소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제4 구성요소인 자아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제1 구성요소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제2 구성요소인 도덕판단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제3 구성요소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제4 구성요소인 자아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도덕적 행동은 청소년의 연령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도덕적 행동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도덕적 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V.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남녀공학 2개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남녀공학 2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변화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변화와 도덕적 행동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참가한 학생은 중학생 남녀 213명, 고등학생 남녀 193명으로 총 406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의 평균 연령은 13세이고, 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16세이었다.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

연 령	남	여	계
중 학 생(13세)	104	109	213
고 등 학 생(16세)	102	91	193
계	206	200	406

검사는 2005년 10월 4일부터 10월 8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검사는 다섯 종류(사회적 상황해석능력 검사, 도덕판단력 검사,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검사, 자아강도 검사, 도덕적 행동 측정 설문지)이며, 문항수가 많아 전체 소요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섯 종류의 검사를 2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네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검사, 도덕판단력 검사,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검사, 자아강도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도덕적 행동의 측정을 위하여 도덕적 행동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1)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검사

레스트의 제1 구성요소인 도덕적으로 인지하고 처리하는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명원(1993)이 제작한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명원(1993)은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Cronbach  $\alpha$ =.82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Cronbach  $\alpha$ =.61로 나왔다.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검사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 공감능력, 역할 획득 능력을 측정하는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 문항 19문항, 부정적 문항 19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총점은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38점에서 190점이다.

### 2) 도덕판단력 검사 : 레스트의 DIT((Defining Issues Test)

레스트의 제2 구성요소인 이상적 도덕 행동의 추리인 도덕판단력을 측정하기 위해 레스트(1979)가 제작한 DIT를 문용린이 번안한 DIT 간편형을 사용하였다. DIT는 원래 여섯 개의 도덕적 딜레마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용린이 번안한 DIT 간편형은 세 개의 도덕적 딜레마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도덕적 딜레마는 ‘남편의 고민’, ‘탈옥수’, ‘의사와 환자’이다. 각 도덕적 딜레

마에는 12개씩의 질문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제시되는 12개의 질문문항은 도덕판단의 2, 3, 4, 5A, 5B, 6단계에 해당하는 문항과 A문항과 M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문항은 콜버그와 클라머(Kohlberg & Kramer, 196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4와 1/2 단계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2단계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검증 결과에서 A점수는 무시된다. 그리고 M문항은 무의미한 문항으로 피험자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답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문용린, 1994). 따라서 M문항의 원점수에서 4점 이상 응답 자료는 불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처리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각 도덕적 딜레마에서 12개의 질문문항에 8개 이상의 동일한 답을 한 학생도 불성실한 답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처리에서 제외시켰다.

DIT는 피험자들이 각 주제 진술의 중요도를 평정한 후 12개의 질문문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4개의 질문문항을 선택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네 번째로 중요한 것까지 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다. DIT의 기본 가정은 제시된 도덕적 딜레마에서 도덕판단 수준이 서로 다른 피험자들은 질문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다르게 평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DIT는 피험자들이 각 질문문항에 대해 평정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에 따라 피험자들의 도덕판단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도덕적 딜레마에 있는 12개의 질문문항에 대한 피험자들의 5단계 평정을 통해서 피험자들의 전반적인 도덕판단의 수준인 D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12개 질문문항 중 중요한 질문문항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 따라 매긴 4개의 질문문항을 통해 후인습적 도덕판단 수준인 P(%)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P(%)점수는 후인습적 도덕판단 수준에 피험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P(%)점수가 높을수록 그 피험자는 도덕판단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문용린, 1994).

본 연구에서는 P(%)점수만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P(%)점수에 대한 내적일

치도로 박찬주(1990)는 Cronbach  $\alpha=.76$ 으로 보고하였고, 김명원(1993)은 Cronbach  $\alpha=.66$ 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Cronbach  $\alpha=.82$ 이었다.

### 3)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검사

레스트의 제3 구성요소인 행동에 옮길 방안 결정인 도덕적 동기에 해당하는 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명원(1993)이 제작한 「가치부여 경향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Cronbach  $\alpha=.69$ 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Cronbach  $\alpha=.62$ 이었다. 이 도구는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이야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치(도덕적 가치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적 가치부여 문항은 각각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는 두 개의 가치에 응답자가 표시한 점수의 차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40점이 되며 점수의 차이가 클수록 도덕적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 4) 자아강도 검사

바론(Barron)의 자아강도 척도(1953)를 신행우와 김재환(1992)이 재표준화한 「자아강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영역(증상의 부재, 강한 현실감, 정서적 안정감, 유약함의 부인, 비종교적 태도)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8점이 된다. 점수가 클수록 자아강도의 점수가 높다. 김명원(1993)은 내적일치도가 Cronbach  $\alpha=.66$ 이었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Cronbach  $\alpha=.80$ 이었다.

### 5) 도덕적 행동 측정 설문지

도덕적 행동 측정 설문지는 양혜자(1992)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도덕 행동 측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교육부가 제시했던 8가지 덕목(인내, 예절, 질서, 협동, 자주, 정직, 절약, 청결)과 도덕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문항은 5단계 평정척도에 피험자가 평소 행동하는 대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은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였다. 총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덕적 행동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0점에서 250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  $\alpha=.89$ 이었다.

## 3. 자료 처리 및 분석

자료의 통계 처리는 SAS 9.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가설 1과 가설 2인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하였다. 가설 3인 도덕적 행동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로 두 집단을 나누어 t-검증을 하였다. 가설 4인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 대상이 경기도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 2개교와 남녀공학 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적인 특수성에서 오는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스트의 네 구성요소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는 김명원(1993)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 도구 중 도덕판단력 측정 도구를 제외한 2가지 측정 도구(사회적 상황해석능력 검사, 도덕적 가치 부여 경향성 검사)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며, 자아강도 검사는 바론(Barron)의 자아강도 척도를 신행우와 김재환(1992)이 재표준화한 것이지만 레스트의 제4 구성요소인 자아강도 측정 도구로는 표준화된 것이 아님으로 연구 결과에는 한계가 따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적 행동 측정 설문지는 양혜자의 선행 연구(1992)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덕적 행동의 측정이 어렵고, 측정이 피험자들의 설문지 응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한정적일 수 있다.

## 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적 네 구성요소와 도덕적 행동이 청소년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령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차이

“가설 1.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도덕적 네 구성요소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도덕판단력(P점수),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자아강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하였다.

#### 1) 연령에 따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1 구성요소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나타났듯이, 중학생의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의 평균은 115.57, 고등학생의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의 평균은 119.14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볼 때 고등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가 의미가 있는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산출한 결과,  $t=-3.29$ 로서,  $p<.01$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연령에 따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 t-검증

연령	N	M	SD	t
중학생(13세)	213	115.57	10.83	-3.29**
고등학생(16세)	193	119.14	11.00	

\* p<.05    \*\* p<.01    \*\*\* p<.001

따라서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으므로 가설 1-1은 긍정되었다.

## 2) 연령에 따른 도덕판단력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2 구성요소인 도덕판단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연령에 따른 도덕판단력(P점수) : t-검증

연령	N	M	SD	t
중학생(13세)	213	32.24	15.11	-2.67**
고등학생(16세)	193	36.15	14.15	

\* p<.05    \*\* p<.01    \*\*\* p<.001

제시된 <표 4>에서 보면, 제2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후인습적 도덕판단력 점수인 P점수의 평균이 중학생이 32.24, 고등학생이 36.15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t=-2.67(p<.01)$ 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로 도덕판단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덕판단력도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설 1-2는 긍정되었다.

### 3) 연령에 따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제3 구성요소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으로 산출하였다.

<표 5 > 연령에 따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 t-검증

연령	N	M	SD	t
중학생(13세)	213	8.92	8.84	6.7***
고등학생(16세)	193	3.50	7.45	

\*  $p<.05$     \*\*  $P<.01$     \*\*\* $p<.001$

<표 5>에서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의 평균은 8.92였고, 고등학생의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의 평균은 3.50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t=6.7$ 로서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런데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이 연령증가와 더불어 발달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개인의 이익과 같은 개인적 동기나 가치보다는 도덕적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3은 긍정되었으나, 연령 증가에 따른 발달과는 부적 경향을 보였다.

#### 4) 연령에 따른 자아강도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4 구성요소인 자아강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연령에 따른 자아강도 : t-검증

연령	N	M	SD	t
중학생(13세)	213	19.79	6.55	-5.49***
고등학생(16세)	193	23.36	6.52	

\* p<.05    \*\* p<.01    \*\*\* p<.001

위 표에서 나타났듯이, 중학생의 자아강도의 평균은 19.79, 고등학생의 자아강도의 평균은 23.36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왔다.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t=-5.49(p<.001)$ 로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설 1-4는 긍정되었으며, 연령 증가와 함께 자아강도가 발달되는 것을 보였다.

## 2. 성별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차이

“가설 2.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도덕적 네 구성요소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도덕판단력(P점수),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자아강도를 성별에 따라 그 차이를 다

음과 같이 알아보았다.

###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1 구성요소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산출하였다.

<표 7> 성별에 따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 t-검증

성 별	N	M	SD	t
남학생	206	115.82	11.23	-2.7**
여학생	200	118.76	10.70	

\* p<.05    \*\* p<.01    \*\*\* p<.001

<표 7>에 나타난 결과처럼, 남학생의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의 평균은 115.82였고, 여학생의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의 평균은 118.76으로 나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이 높았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2.7로서 p<.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이 높았으며, 그 차이도 유의미하였으므로 가설 2-1은 긍정되었다.

### 2) 성별에 따른 도덕판단력(P점수)

도덕적 4구성요소 중 제2 구성요소인 도덕판단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으로 검증하였다.

<표 8 > 성별에 따른 도덕판단력(P점수) : t-검증

성 별	N0	M	SD	t
남학생	206	34.89	14.99	1.06
여학생	200	33.33	14.44	

\* p<.05    \*\* p<.01    \*\*\* p<.001

그 결과는 <표 8>과 같이 남학생의 도덕판단력(P점수)의 평균은 34.89였고, 여학생의 도덕판단력(P점수)의 평균은 33.33으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았다.

이와 같은 두 집단의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1.06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도덕판단력(P점수)은 차이가 없으므로 가설 2-2는 부정되었다.

### 3) 성별에 따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3 구성요소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9>에서 제시된 것처럼, 남학생의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의 평균은 5.06이었고, 여학생의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의 평균은 7.6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표 9> 성별에 따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 t-검증

성 별	N	M	SD	t
남학생	206	5.06	7.70	-3.06**
여학생	200	7.67	9.34	

\* p<.05    \*\* p<.01    \*\*\* p<.001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 t-검증해 본 결과,  $t=-3.06(p<.01)$ 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설 2-3은 긍정되었다.

#### 4) 성별에 따른 자아강도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4 구성요소인 자아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성별에 따른 자아강도 : t-검증

성 별	N	M	SD	t
남학생	206	21.69	6.40	.62
여학생	200	21.28	7.13	

\* p<.05    \*\* p<.01    \*\*\* p<.001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의 자아강도 평균은 21.69였고, 여학생의 자아강도 평균은 21.28로 평균에 있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t=.62$ 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4는 부정되었다.

### 3. 연령별, 성별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

“가설 3. 도덕적 행동은 청소년의 연령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도덕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다.

#### 1) 연령에 따른 도덕적 행동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도덕적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연령에 따른 도덕적 행동 : t-검증

연령 및 성별		N	M	SD	t
연령	중 학생(13세)	213	158.94	21.70	-1.49
	고등학생(16세)	193	155.96	18.10	

\* p<.05    \*\* p<.01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도덕적 행동 평균은 158.94였고, 고등학생의 도덕적 행동의 평균은 155.96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도덕적 행동이 더 높게 나왔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도덕적 행동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가설 3-1은 부정되었다.

## 2) 성별에 따른 도덕적 행동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도덕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2> 성별에 따른 도덕적 행동 : t-검증

연령 및 성별		N	M	SD	t
성별	남학생	206	158.16	20.22	.64
	여학생	200	156.88	20.00	

\* p<.05    \*\* p<.01

그 결과를 <표 12>가 보여주듯이, 남학생의 도덕적 행동의 평균이 158.16, 여학생의 도덕적 행동의 평균은 156.88로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근소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설 3-2는 부정되었다.

## 4.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4. 도덕적 네 구성요소는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

증하기 위하여 도덕적 네 구성요소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도덕판단력,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자아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도덕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귀 모형	독립변인	B	SE	$S^2$	$R^2$	F
1	절편	152.80	1.17	353.37	.11	50.62***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78	.11			
2	절편	160.95	3.30	348.19	.13	29.26***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73	.11			
	자아강도	-.37	.14			
3	절편	137.77	10.28	344.15	.14	21.56***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74	.11			
	자아강도	-.56	.16			
	사회적 상황해석 능력	.23	.10			

\* p<.05    \*\* p<.01    \*\*\* p<.001

1단계에서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을 투입했을 때  $R^2=.11$ 로 도덕적 행동에 대해 11%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50.62$ ,  $p<.001$ ). 2단계에서 자아강도를 투입했을 때  $R^2=.13$ 으로 종속 분산의 13% 정도를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과 자아강도가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회귀모형은  $F=29.16$ ( $p<.001$ )로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이 추가되었을 때 종속변수인 도덕적 행동에 대한 설명량은 14% 정도로 나타났으며( $R^2=.14$ ), 전체회귀모형은  $F=21.56$ 으로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2 구성요소인 도덕판단력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수준 15%하에 유의하지 않으므로 단계적 회귀분석모형에서 제거되었다. 따라서 도덕판단력(P점수)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자아강도,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자아강도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왔으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도덕적 행동에 자아강도가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은 사회적 상황해석능력과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의 변인이 함께 들어감으로써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인다.

## VI. 논의 및 제언

### 1. 논의

레스트는 도덕적 행동 표출 과정에는 네 가지의 심리적 과정이 변인으로 작동된다고 보았다. 네 가지의 심리적 과정으로써 제시한 네 구성요소 모형은 콜버그의 이론과는 달리 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단선적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사고는 도덕적 행동을 표출시키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네 구성요소는 별개의 과정으로써 도덕적 행동 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변인으로 보았다. 또한, 레스트는 도덕적 행동 실행의 실패는 네 가지 구성요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핍되거나, 부족할 때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레스트의 네 구성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적 네 구성요소 발달 및 도덕적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령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차이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이 결과로 미루어볼 때 어떤 특정한 도덕적 사태에서 그 사태를 민감하게 해석하고,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의 요구나 욕구를 파악하여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능력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은 인지적 처리 과정을 포함한다고

앞서 진술한바 있는데,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이 연령과 더불어 발달했다는 것은 인지적 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상황해석능력도 발달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도덕판단력(P점수)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고재혁(1987)과 심재호(1992)의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도덕판단력(P점수)의 차이가 없다고 나온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원효원(1987)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도덕판단력(P점수)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박찬주(1989) 역시 도덕판단력(P점수)의 평균에서 중학생(2학년)이 35.01, 고등학생(2학년)이 40.89로  $p < .05$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고 했으며, Moon(1986b)도 도덕판단력(P점수)의 평균에 있어 중학생(1학년)이 25.0, 고등학생(2학년)이 39.8로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와 이러한 선행연구(원효원, 1987; 박찬주, 1989; Moon, 1986b) 결과를 통해 볼 때 도덕판단력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콜버그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3 구성요소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도덕적 가치보다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가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 증가와 더불어 인지적 판단능력은 중학생에 비해 향상되고 있으나, 동기에 있어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4 구성요소인 자아강도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강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와 유사한 김명원(1993)의 연구에서 비행청소

년 집단과 정상청소년 집단인 고등학생 간의 자아강도 차이는 비행청소년 집단이 27.37, 정상청소년 집단인 고등학생이 26.35로 나왔으나, 통계적으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 2) 성별에 따른 도덕적 네 구성요소의 차이

제1 구성요소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도덕 사태에서 도덕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의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2 구성요소인 도덕판단력(P점수)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콜버그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도덕판단력(P점수)이 높았다. 반면 박찬주(1989)는 중학생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덕판단력(P점수)이 높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효원(1987), 원현주(1999), 심재호(1992)의 연구에서 남녀 중·고등학생 간의 도덕판단력(P점수)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남녀 간의 도덕판단력 수준의 차이에 대해 콜버그 이후로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적절한 표집 과정을 거친 피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에 의해 다시 검증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 구성요소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인지적 판단인 도덕판단력에 있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도덕적 동기와 가치에 해당되는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제2 구성요소인 도덕판단력이 높다하더라도 제3 구성요소인 도덕적 동기에 해당되는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 구성요소인 자아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아강도의 남녀 차이를 증명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 **3) 연령별, 성별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

연령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행동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연령 증가에 따른 도덕판단력의 발달과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혜자(1992)의 연구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설이(1985)는 도덕적 행동선택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차이는  $F=25.07(p<.001)$ 로 의미 있게 여학생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으나, 아직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4)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3 구성요소인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이 종속변수인 도덕적 행동에 대해 11% 정도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레스트의 주장처럼 특정한 도덕 사태에 접했을 때, 그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도덕적 행동 표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본다.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4 구성요소인 자아강도가 단계적 회귀모형으로

들어갔을 때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과 자아강도가 도덕적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3%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아강도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아강도가 도덕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과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이 함께 들어감으로써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1 구성요소인 사회적 상황해석능력은 회귀모형 3단계에 들어갔으며, 사회적 상황해석능력과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및 자아강도가 도덕적 행동인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량은 14%로 나왔다. 이 결과를 통해 제1 구성요소인 도덕적 상황해석능력이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적 네 구성요소 중 제2 구성요소인 도덕판단력(P점수)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수준 15%하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도덕판단력(P점수)이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도덕판단력의 증가와 더불어 도덕적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콜버그의 이론과는 상반된 결과로 양혜자(1992)의 연구 결과와도 상반된 결과였다. 양혜자(1992)는 도덕판단력에 따른 도덕 행위 점수의 차이 검증을 통해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설이(1985)는 도덕판단력과 행동선택은  $r = .080$ 으로 상관이 없었다고 했으며, 도덕판단력이 높을수록 도덕판단력과 행동선택 사이의 격차는 컸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찬주(1989)도 도덕판단력을 나타내는 P(%)점수와 도덕행위 선택시 각 개인이 지닌 도덕판단의 일반도식을 활용하는 척도인 U점수 간에는  $r = .04$ 로 거의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하면서, 이런 결과를 통해 도덕판단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U점수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인지적으로 도덕판단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레스트(1984)도 지적했듯이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는 도덕판단력 외에도 복합적인 심리적 과정변인

이 작용하고 있으며, 도덕적 행동의 실행 실패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의 부족이나 결핍으로 일어난다는 레스트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 2. 제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 결과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몇 가지를 제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콜버그의 이론과는 달리 도덕판단력의 발달과 더불어 도덕적 행동은 향상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도덕판단력의 발달이 도덕적 행동 표출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콜버그의 이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도덕성 연구에는 도덕판단과 함께 상호 작용하고 있는 상황변인들도 고려해야 하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레스트의 주장과 같이 도덕적 행동 표출에는 도덕판단력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변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도덕교육의 최종 목표를 도덕적 행동 실행으로 볼 때, 도덕적 행동의 실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덕교육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콜버그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도덕판단력 향상을 통한 도덕성발달을 도모해왔다. 비록 콜버그의 도덕판단력 향상을 위한 토론학습 모형이 도덕성발달을 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도덕교육의 최종 목표가 도덕적 행동 표출에 있음을 지각할 때 도덕판단력 향상을 위한 도덕교육 방안 및 수업 전략 외에도 도덕 사태에 대한 상황판단능력,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여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를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도덕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단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도덕판단력이 높다하더라도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경향을 통해 볼 때, 도덕적 네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별개의 과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레스트의 주장대로 네 구성요소 모형이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별개의 과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 실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덕적 행동 표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도덕적 네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교육의 내용선정 및 교육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고등학생들이 인지적 측면인 도덕판단력은 높으나 도덕적 행동에서 중학생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는 고등학교의 도덕교육의 방향을 생각해볼게 한다. 이것은 고등학교의 도덕교육에서 인지 중심의 도덕판단력 향상을 위한 도덕교육만이 아니라, 도덕적 동기와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종전의 도덕판단력과 도덕적 행동 간의 관계 연구에서 벗어나, 도덕적 행동 표출의 심리적 변인인 네 구성요소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나아가 네 구성요소와 도덕적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보였듯이, 사회적 상황해석 능력과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이 도덕적 행동 표출에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과정에 한계점이 있었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덕적 행동 표출의 심리적 과정변인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도덕교육에 시사점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고재혁(1987).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그 교육적 함의(콜버그의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명원(1993). 도덕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Rest의 네가지 구성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은숙(2000).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교수 방법이 아동의 도덕적 판단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문용린(1986a). 인지발달론의 관점에서 본 도덕성 발달의 연구의 문제와 전망. **교육이론**. 제1권1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_\_\_\_\_ (1986b). 생활문제 설문지(한국어판 DIT 설문지).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
- \_\_\_\_\_ (1988).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관계 고찰. **한국교육**. 제15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4). 한국청소년의 도덕성발달진단을 위한 연구(도덕판단력 진단검사를 위한 표준화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문용린역(2000). **도덕심리학**. Lapsley, D. K.(2000).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찬주(1989). 한국인의 도덕판단과 행동선택에 관한 DIT적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박치성(2002).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의 상황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신행우, 김재환(1992). Barron의 자아강도척도의 표준화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 11집**. 한양대학교 정신 건강연구소.
- 송명자(1995).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_\_\_\_\_ (1997). **인간발달연구(인지발달과 도덕성발달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심재호(1992). 한국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경향에 대한 분석 연구(J. R.Rest의 DIT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양혜자(1992). 도덕행위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원현주(1999). 도덕적 자아와 도덕 행동 선택에 관한 연구(Blasi의 도덕적 자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원효현(1987). 도덕성발달의 관계변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설이(1985). 도덕판단력과 행동선택 및 그 격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옥형(1999). **아동 발달**. 서울: 집문당.
- \_\_\_\_\_ (2002). **아동·청년 발달**. 서울: 집문당.
- 이혜주(1981). 도덕적 지(知)와 행(行)과의 상관 관계적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종진(1990). 도덕성의 발달과 DIT에 의한 측정 그 측정에 관한 테스트의 인지발달론적 접근. **대구대학교 학생지도연구 제16집**. 대구대학교.
- 홍성훈(2000).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의과대학생의 도덕판단력·민감성 행동선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Austin, V. D., Ruble, D. N., & Trabasso, T.(1977). Recall and Order Effects as Factors in Children's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48*, 470-474.
- Blasi, A.(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593-637.
- \_\_\_\_\_ (1981).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 Unpublished manuscript.
- Colby, A., Kohlberg, L., Gibbs, J., & Lieberman, M.(1983).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judg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1-2, whole).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ueneich, R.(1982).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integration rules for making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53*, 887-894.
- Hoffman, M. L.(1970). Moral Development. P. H.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3rd Ed., Vol. 2). New York: Wiley.
- \_\_\_\_\_ (1977). Moral internalization: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1.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0). Orlando, Florida: Academic Press.
- Kohlberg, L.(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moral thinking and choice in the years 10 to 16.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_\_\_\_\_ (1984a).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New York: Haper & Row.
- Kohlberg, L. & Candee, D.(1981). *The Relationship of Moral Judgment to Moral Action*, Paper presented at the Florida University Conference on Morality and Moral Development.
- Kohlberg, L. & Kramer, R..(1969).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ldren and Adul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2, 93-120.
- Nelson, S. A.(1980). Factors influencing young children's use of motives and outcomes as moral criteria. *Child Development*, Vol. 51.
- Piaget, J.(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M. Gabain, trans.) New York: Free press.
- Rest, J. R.(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1983). Morality. In J. H. Flavell & Ellen M. Markma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VolIII. N. Y.; John Wiley & Sons, 556-629
- \_\_\_\_\_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Press.
- Turiel, E.(1974). Conflict and transition in adolescent mor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5, 14-29.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st's Four Moral Components and Moral Behavior**

Kim, Sei Jung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xplain what relation there exists between the four moral components and adolescents' moral behavior centering on Rest's four components model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adolescents' moral education.

For this purpose, we set hypotheses as follows.

1. The four moral components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adolescents' age.
2. The four moral components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adolescents' gender.
3. Moral behavior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adolescents' age and gender.
4. The four moral components will affect adolescents' moral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3 male and female 1st year middle school students and 193 male and female 1st year high school students, so a total of 406 students. We used moral sensitivity test, defining issue test (DIT), moral motivation test and ego strength test to measure the students' four moral components, and a moral behavior questionnaire to measure their moral behavior. The test was carried out in the period between the 4th to the 8th of October 2005,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test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9.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rom the analysis of four moral components according to age, moral sensitivity, moral judgment (P score), and ego strength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high school students than middle school ones. However, moral motiv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iddle school students than high school ones.

2. From the analysis of four moral components according to gender, moral sensitivity and moral motiv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students than male ones, but moral judgment (P score) and ego strength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students.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oral behavior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neither wa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4. Among the four moral component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oral behavior, but moral judgment (P score) appeared not to affect moral behavior. And ego strength had a negative effect on moral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besides moral judgment, various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 the manifestation of moral behavior. In particular, moral sensitivity and moral motivation were more influential than moral judgment on moral behavior.

This result implies that, in adolescents' moral education, we should emphasize not only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moral judgment but also education of internalization in moral values and experience centered moral education in terms of the right recognition and interpretation ability in current moral reality and moral motivation improvement, an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al education programs in response to the requirement.



<부록 1>

사회적 상황해석능력 검사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생각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문항들을 읽고 자신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해당란에 V표를 해주십시오.

<설문 예시>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질 문
			✓		나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즐겁게 느껴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질 문
					1. 나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즐겁게 느껴진다.
					2. 신문에 난 짤막한 기사를 읽고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잘 안다.
					3. 나는 남을 도와주게 되는 상황에서도 항상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사람의 입장까지 생각하여 행동한다.
					4.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보일 수 있는 반응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
					5. 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과 결과를 모를 때가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질 문
					6.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무슨 문제가 그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7. 내 주변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8. 나는 실제로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9. 나는 항상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방향을 잘 예측 한다.
					10. 잘 대처했으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11. 나에게 닥친 일이나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12.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남의 눈치를 받는 경험을 자주한다.
					13.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각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다.
					14.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15. 선의로 남을 도와주려할 때 사람들은 내 뜻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
					16. 나와 친한 사람의 경우에 상황이 다르게 바뀔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잘 예측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질 문
					17.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그 행동을 보고 벌어진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8.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식의 도움이 필요할지를 헤아려 행동에 옮긴다.
					19.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잘 알아주지 못해서 그 사람을 실망시킬 때가 많다.
					20.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
					21.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누가 일으켰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를 때가 자주 있다.
					22.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지만 잘 모를 때가 많다.
					23. 나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할 경우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다.
					24. 나는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남의 입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25.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모를 때가 있다.
					26. 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들 중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금방 알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질 문
					27.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기치 않게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28.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다.
					29.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적절한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30. 피해야 할 상황인데도 잘 파악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31. 가까운 사람이 화를 냈을 때 왜 그가 화를 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
					32. 친구나 가족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33. 친구들의 모임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도와주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해서 그 모임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있다.
					34.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아주 예민하다.
					35. 나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36.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상황일 때 그 사람이 보일 반응에 대해서 심사숙고한다.
					38. 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 <부록 2>

### 도덕적 가치부여 경향성 검사

<보기>와 같이 아래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에 제시된 짧은 이야기를 읽고, 만약에 당신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아래 제시된 두 가지 생각이 각각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여 해당란에 V표를 해주십시오.

#### <보기>

몹시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영희는 포장도로를 따라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목이 말라서 헉헉거리는데 저만큼 아이스크림 판매대가 보였다. 아이스크림은 500원이었다. 영희는 주머니에 돈이 700원 있었다. 버스비는 250원이었고, 아이스크림을 사게 되면 영희는 돈이 부족하여 4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집에 가야한다. 그래서 영희는 아이스크림을 살 것인지 그냥 집으로 갈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 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V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u> 는 생각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V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한다</u> 는 생각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1. 어떤 사람이 몹시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버스를 탔다. 그런데 다행히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자리에 앉아서 다음 정거장에 이르렀을 때 한 할아버지가 버스에 올라서 그의 옆에 섰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일어서야 할지 망설였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 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노인을 공경해야 한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피곤한 몸을 쉬게 할 수 있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시험시간 옆자리에 앉은 영수의 친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 친구가 영수의 답안지가 놓여 있는 곳에 눈길을 보며 영수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그래서 영수는 답안을 보여줘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 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친구와의 우정이 중요하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3. 어떤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봄비는 전철역에서 표를 사려고 서있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 쪽을 돌아보니 건강한 남자가 여자의 핸드백을 낚아채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그 여자를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 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b>범죄를 당하고 있는 여자를 도와야 한다</b>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b>내가 다칠지도 모른다</b>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4. 두 집이 큰 홍수로 외부와 고립되었다. 그 중 한 집은 식량이 물에 휩쓸려가 버려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다른 한 집은 가지고 있는 식량이 6일분 밖에 없었다. 심한 비바람으로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으며 방송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일주일 정도 계속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집의 가장은 식량을 나눠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 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b>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도와야 한다</b>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b>식량을 나눠줄 경우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다</b>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5. 어떤 한 사람이 특이한 유형의 피를 급히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병원에 도착했다. 지원자가 여러 명 있었으나 여러 가지 혈액검사 결과 환자에게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 한 사람뿐이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환자를 위해서 일주일도 넘는 기간동안 매일 일정량의 헌혈을 해야 하며 그럴 경우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신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헌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하 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b>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b>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b>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b>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6. 철수가 밤에 길을 가다가 어두운 골목에서 우람한 몸집의 남자가 여학생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 여학생은 철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남자는 철수를 보며 당장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철수는 그 여자를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 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b>위험에 처한 약자를 도와야 한다</b>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b>내가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b>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7. 한 수영 선수가 바닷가에서 열리는 수영경기에 참가하여 출발 신호를 듣고 물에 뛰어 들었다.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았다. 그 수영경기는 매우 유명한 경기였고, 그 경기에서 우승하면 세계적인 훌륭한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더구나 그는 이 경기에서 우승할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지, 경기를 계속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 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나의 성공이 무산될 수 있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8. 철희가 길을 건다가 우표가 붙어 있는 꽃그림이 그려진 화려한 편지봉투를 주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재미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편지를 열어볼까 그냥 우체통에 넣어줄까 잠시 망설였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 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호기심을 채울 수 있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9. 어떤 사람이 약속시간이 다 되어 바쁘게 약속장소를 찾고 있었다. 다행히 약속장소는 길 건너편에 있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찾아보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무단 횡단을 해서라도 약속장소에 빨리 가야할지 망설였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 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공중질서를 지켜야 한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약속장소에 빨리 갈 수 있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10. 경수는 서점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첩을 보았다. 그러나 그 사진첩은 가격이 3만원이나 되었다. 경수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냥 서점을 나섰다. 마침 길을 걷다가 3만원이 든 지갑을 주웠다. 지갑에는 잃어버린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야 할지 주인을 찾아줘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매우 중요 하다 ①	어느 정도 중요 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1.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u>사고 싶었던 사진첩을 살 수 있다</u> 는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 <부록 3>

#### 자아강도 검사

---

---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자아에 대한 측정을 위한 것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자신과 내용이 맞으면 '예'에 ○표를 해주시고, 자신과 내용이 맞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아니오) 1. 한달에 한두 번 설사를 한다.

(예, 아니오) 2. 갑자기 웃음이나 울음을 참지 못할 때가 있다.

(예, 아니오) 3.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예, 아니오) 4.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5. 기침을 많이 하는 편이다.

(예, 아니오) 6. 잠을 잘 깨고 설치게 된다.

(예, 아니오) 7.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성가시다.

(예, 아니오) 8. 때때로 몸이 화끈거리거나 저리거나 근질근질하거나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때가 있다.

(예, 아니오) 9.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예, 아니오) 10. 할일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아니오) 11. 거만하게 으스대는 사람이 칭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도 반대하고 싶어진다.

(예, 아니오) 12. 음식 만들기를 좋아한다.

(예, 아니오) 13. 따분해지면 곧잘 신나는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한다.

(예, 아니오) 14. 항상 기운이 없고 몸이 나른하다.

(예, 아니오) 15. 나는 이성과 시시덕거리를 좋아한다.

- (예, 아니오) 16. 나의 죄는 용서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 (예, 아니오) 17.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을 때가 많다.
- (예, 아니오) 18. 성(性)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한다.
- (예, 아니오) 19. 쉽게 화를 내지만 바로 마음이 풀린다.
- (예, 아니오) 20.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 (예, 아니오) 21. 혼자 속으로만 간직해야 할 일들이 자주 꿈에 나타난다.
- (예, 아니오) 22. 내가 일하는 방식은 남에게 오해를 잘 받는다.
- (예, 아니오) 23. 잠시 정신이 깜박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있었다.
- (예, 아니오) 24.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나는 친할 수 있다
- (예, 아니오) 25. 때때로 나는 너무 잘 틀려서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다.
- (예, 아니오) 26. 길을 걷다가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비켜갈 때가 종종 있다.
- (예, 아니오) 27 나는 이상하고 기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예, 아니오) 28. 사랑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을 즐길 때가 종종 있다.
- (예, 아니오) 29. 때때로 중요하지도 않은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며칠이고 나를 괴롭힌다.
- (예, 아니오) 30.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일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를 하면 고쳐주려고 애쓴다.
- (예, 아니오) 31. 아무에게도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 (예, 아니오) 32. 종종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해야만 했다.
- (예, 아니오) 33. 사기꾼에게 되 속임수를 쓴다면 정말 통쾌할 것 같다.
- (예, 아니오) 34. 나는 아주 이상한 종교적 체험을 한 적이 있다.
- (예, 아니오) 35. 가족 중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36. 나는 이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예, 아니오) 37.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매우 엄했다.

(예, 아니오) 38. 평소에 자주 기도를 한다.

(예, 아니오) 39. 슬픔이나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예, 아니오) 40. 좁거나 막힌 곳에 있으면 무서워진다.

(예, 아니오) 41. 불결한 것을 보면 겁이 나거나 비위가 상한다.

(예, 아니오) 42. 세종대왕 보다 이순신 장군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오) 43. 어떤 동물을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예, 아니오) 44. 내 피부는 이상할 만큼 접촉에 민감하다.

(예, 아니오) 45. 늘 피로를 느낀다.

(예, 아니오) 46. 내가 화가라면 아이들을 그리고 싶다.

(예, 아니오) 47. 내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예, 아니오) 48. 한 밤중에 깜짝 놀라는 때가 종종 있다.

## <부록 4>

### 도덕적 행동 설문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최근 일년간 생활을 생각해보고,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해당란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다 ①	대체로 그렇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거의 없다 ⑤	행 동 내 용
					1. 숙제나 공부가 힘이 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2. 부모님이 정해주신 귀가 시간을 지킨다.
					3. 이웃사람이 청소하고 있으면 함께 거들어 준다.
					4. 필요한 것이지만 내 물건이 아니면 갖지 않는다.
					5. 길을 묻는 사람에게 내가 바쁘더라도 친절하게 길을 가 리켜 준다.
					6. 옷을 항상 깨끗이 입고 밖에서 돌아오면 얼굴과 손발을 씻는다.
					7. 부모님과 같이 식사할 때 부모님이 수저를 드시기 전에는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다.
					8. 버스를 탈 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녹색 신호등에서만 길을 건넌다.
					9. 내 방 청소를 내가 하고 학교 준비물도 내가 챙긴다.
					10. 용돈과 학용품을 아껴 쓴다.
					11.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다.

항상 그렇다 ①	대체로 그렇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거의 없다 ⑤	행 동 내 용
					12.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참는다.
					13. 버스에서 노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14. 어머니가 집 청소를 할 때 도와드린다.
					15. 학급에서 선생님이 시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먼저 알아본다.
					16. 학교 수돗물이 줄줄 흐르고 있으면 가서 잠근다.
					17. 친구가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왔을 때 내 것을 기쁜 마음으로 빌려준다.
					18.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다.
					19. 연습이나 실습시간에 내가 맡은 분야를 회피해 본 일은 없고 내가 직접 해내야 속이 시원하다.
					20. 숙제는 정확한 답은 못될지라도 반드시 해결하며, 하지 않아서 책망당한 일은 없다.
					21. 나는 남의 물건을 대할 때 나의 물건 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며 꼭 돌려준다.
					22. 나는 청소 당번이나 방과 후에 해야 하는 일을 맡게 되더라도 책임이 주어지면 기꺼이 받아들인다.
					23. 나는 약속을 어길 때가 거의 없고 간혹 어기면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얻어 반드시 오해를 풀게 한다.
					24. 나는 어떤 달콤한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고통을 무릅쓰고 자신 있게 물리친다.
					25. 나는 학교 행사가 끝나면 살짝 가버리는 일은 없고 끝까지 맡은 일의 뒤처리를 깨끗이 한다.
					26. 나는 내가 맡은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반드시 나의 일생을 그르칠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진다.

항상 그렇다 ①	대체로 그렇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거의 없다 ⑤	행 동 내 용
					27. 나는 연습과 복습을 할 때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가 요구하면 아무 때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28. 나는 학습문제 연습이나 실습에서 남이 잘 안되고 있을 때 옆에서 내가 도와줌으로써 능률적으로 잘되는 일이 자주 있다.
					29. 나는 조회나 종례시간에 논의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항상 우리 학급 친구들 하나하나의 처지를 알고 싶고, 또 거의 알고 있다.
					31. 나는 청소시간에 남이 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일은 없고 항상 남과 똑 같은 비중으로 하며, 제 시간에 할 일을 다한다.
					32. 나는 불우 이웃돕기 운동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앞장 서서 협조한다.
					33. 나는 자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내 의견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준수한다.
					34. 나는 체육대회 때 응원에 적극 참여하며, 자리를 이탈하여 돌아다니지 않는다.
					35. 나는 이웃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길 때가 많다.
					36. 나는 숙제가 없어도 연습, 복습, 실습 등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해결해 나간다.
					37. 나는 수업시간에 토론하게 되면 나의 의견을 정당하게 주장할 때가 많다.
					38. 나는 남의 힘을 빌리거나 의뢰하는 일은 절대로 없고 남의 간섭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39. 나는 선생님이나 어른에게도 나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항상 그렇다 ①	대체로 그렇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거의 없다 ⑤	행 동 내 용
					40. 나는 방과 후에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남의 일보다 내 자신에 관한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41. 나는 학교 일과 중 남에게 해를 주거나 감정을 폭발시켜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일은 없다.
					42. 나는 각종 고사시간표가 발표되면 내 스스로 준비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공부하는 일이 많다.
					43. 나는 수업시간에도 복장을 흐트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적을 받은 일도 없다.
					44. 나는 수업 중에 친구와 불손하고 장난기 섞인 언행을 하는 일이 없고, 질서 유지와 분위기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45. 나는 부과된 과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일은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베낀 일도 없다.
					46. 나는 등하교시 좌측통행을 꼭 지키고 있으며, 무의식중에라도 길 가운데로 가는 일은 없다.
					47. 나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이나 부모님의 승낙 없이 학교에 결석해 본 적이 없다.
					48. 나는 학교 일과 중 싸움을 걸어 폭력을 쓰는 일이 없고 싸움을 걸어와도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
					49. 나는 복장용의 검사 시 위반 사항이 한번도 없었고 가정에서 외출 시에도 위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50. 나는 누구보다 항상 학교를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고, 교구나 기물을 파괴해 본 일이 전혀 없다.

<부록 5>

도덕판단력 검사

도덕판단력 검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사회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처럼 전적으로 옳은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주어진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 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김 세 정

(                    )    학교	(    )학년 (    )반 (    )번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성별 :    남,    여

---

---

이 설문지는 세 개의 짧은 이야기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12개씩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기’를 잘 읽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설문 예시 >

민수씨는 전로부터 자동차를 사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여 두 아이가 있으며, 수입은 중간 정도입니다. 민수씨는 자동차를 사서 모든 가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시내에 볼일을 보러나갈 때, 방학 중에 여행을 갈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민수씨는 자동차를 사야 할까요?

- ① 사야한다. (  )
- ② 결정할 수 없다. (  )
- ③ 사서는 안된다. (  )

\* 사야한다고 생각하면 ①에 를 합니다.

2. 만약 여러분이 민수씨라면 위의 결정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표의 오른쪽에는 자동차를 살 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으며, 왼쪽에는 그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1번에 √ 표시, 그리고 2번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5번에 √ 표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문제도 빠짐 없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①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꽤 중요 하다 ④	많이 중요 하다 ⑤	질문
	√				1. 차를 파는 사람이 민수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문제는 거의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 2번에 표시하였습니다.)
				√	2. 장기적으로 볼 때 중고차와 새 차 중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 5번에 표시하였습니다.)
			√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질은 좀 떨어지지만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 문제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어 4번에 표시하였습니다.)
		√			4. 차의 색상이 유행에 맞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약간 중요하게 생각되어 3번에 표시되었습니다.)
√					5. 짐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하는가? (이 문제는 자동차를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1번에 표시하였습니다.)

3. 위의 5개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4개를 골라 그 질문의 번호를 다음 순서에 따라 ( )속에 반드시 번호 하나씩만 써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 ( 2 )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 ( 3 )  
세 번째로 중요한 질문 ( 4 )              네 번째로 중요한 질문 ( 1 )

##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종류의 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이 보기에 이 병에 도움이 될만한 약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약이란 라듐의 일종으로서 그 동네 약국 주인이 최근 발견한 것이었다. 이 발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약국 주인은 매우 비싼 값에 팔려고 하였다. 부인의 남편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겨우 필요한 돈의 절반을 마련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약국 주인에게 찾아 가서 “내 부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을 싸게 파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반값을 마저 드릴 터이니 약을 먼저 주실 수 없겠습니까?”하고 애원하여 보았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 약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라고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 남편은 낙담에 빠지게 되었고, 마침내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약국에 숨어들어가 약을 훔쳐오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였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 ① 훔친다. (     )
- ② 잘 모르겠다. (     )
- ③ 훔치지 않는다. (     )

2. 다음의 각 질문들은 남편의 이러한 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 표하십시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①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꽤 중요 하다 ④	많이 중요 하다 ⑤	질 문
					1. 이유야 무엇이건 법이 금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2. 정말로 부인을 사랑한다면 흠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3. 그 약을 먹는다고 꼭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교도소에 갈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을까?
					4. 이 남편이 레슬링 선수이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가?
					5. 남을 돕는 마음에서 흠치는가, 아니면 남편 그 자신에게 이익이 올 것이기 때문에 흠치는가?
					6. 그 약에 대한 약국주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7. 생명의 본질은 죽음 보다 더 우연적인 게 아닐까?
					8.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의 상호 행동 속에 어떤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어느 가치가 더 기본적인가?
					9. 약국 주인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을 믿고서 무리한 값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0. 이 경우에 있어서 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런 것이 아닐까?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냉혹하기 때문에 도둑을 당해도 싸지 않을까?
					12. 약을 훔쳐서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약도 안 훔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값진 행동이 아닐까?

3. 위의 12개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4개를 골라 그 질문의 번호를 다음 순서에 따라 ( )속에 반드시 번호 하나씩만 써주십시오.

- 가장 중요한 질문 ( )
-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 ( )
- 세 번째로 중요한 질문 ( )
- 네 번째로 중요한 질문 ( )

## 탈옥수

한 사람이 10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징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1년을 보낸 후, 그는 탈옥을 하여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년간 열심히 일한 덕택으로 그는 성공하여 커다란 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물건을 생산했으며, 종업원들에게 최고의 월급을 주었고,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한 부인이 이 부자가 바로 8년 전 탈옥한 범인이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 부자가 고발당하게 되면, 그는 다시 잡혀 들어가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 부자를 고발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1. 만약 당신이 이 여자의 입장에 놓였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 ① 고발해야 한다. (      )
- ② 잘 모르겠다. (      )
- ③ 고발하면 안된다. (      )

2. 다음의 각 질문들은 부인의 이러한 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 표하십시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①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꽤 중요 하다 ④	많이 중요 하다 ⑤	질 문
					1. 탈옥 후 8년간의 좋은 행실이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충분하지 않은가?
					2. 탈옥하여 다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 탈옥을 하려고 애쓰는 죄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3. 법에 의한 제약이나 교도소와 같은 제도가 아예 필요 없는 사회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4. 그 범인은 정말로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았다고 보아도 좋을까?
					5.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행실을 모독하는 것이며, 장차 더 큰 일을 할지도 모르는 그의 가능성을 짓밟는 게 아닐까?
					6. 진실로 자선적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교도소나 사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7. 그 사람을 다시 교도소로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가?
					8. 그 사람을 다시 고발하지 않는다면, 탈옥하지 않고 착실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죄수에게는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까?
					9. 이 부인은 그 일을 알기 전에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는가?
					10. 이유야 무엇이건 탈옥한 범인을 고발해야 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 의무가 아닌가?
					11. 시민 각 개인의 의견과 사회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12. 그를 다시 교도소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 개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를 위해서인가?

3. 위의 12개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4개를 골라 그 질문의 번호를 다음 순서에 따라 ( )속에 반드시 번호 하나씩만 써주십시오.

- 가장 중요한 질문 ( )
-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 ( )
- 세 번째로 중요한 질문 ( )
- 네 번째로 중요한 질문 ( )

## 의사와 환자

한 젊은 부인이 고치기 어려운 암에 걸려 6개월에 불과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암은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이 심할 때 환자는 아픔이 너무 커서 정신을 잃기까지 합니다. 모르핀과 같은 진통제를 주면 고통을 덜 수 있으나 이것은 허약한 환자에게는 너무 강한 것이어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그나마 더 단축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끔 고통이 얼마간 가라앉을 때 부인은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사해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곤 합니다. 그녀의 말은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것은 자기로서는 참아내기 매우 어렵고, 참아보았자 몇 개월 내에 죽기는 마찬가지니 고통 없이 죽게 해주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과연 환자의 요청대로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사해서 그녀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였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 ① 들어 준다. (     )
- ② 잘 모르겠다. (     )
- ③ 들어주면 안된다. (     )

2. 다음의 각 질문들은 의사의 이러한 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하십시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①	거의 중요 하지 않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꽤 중요 하다 ④	많이 중요 하다 ⑤	질 문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2. 의사 아닌 다른 사람이 많은 진통제를 주사하여 환자가 죽게 되면, 명백히 살인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은 살인행위가 되는 것이 아닐까?
					3. 사회가 사람들의 삶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전 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4. 의사는 실수한 것처럼 가장해서 환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5. 과연 국가가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살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6. 사회전체가 부여하는 개인의 가치보다 중요한 죽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7.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이목이나 평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8. 한 인간이 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9. 오직 신만이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닐까?
					10. 의사는 어떤 가치를 자기의 개인적 행동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11. 사회가 각 개인이 언제나 본인이 원할 때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가 있을까?
					12. 사회는 과연 자살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을 조화롭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3. 위의 12개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4개를 골라 그 질문의 번호를 다음 순서에 따라 ( )속에 반드시 번호 하나씩만 써주십시오.

- 가장 중요한 질문 ( )
-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 ( )
- 세 번째로 중요한 질문 ( )
- 네 번째로 중요한 질문 ( )